

보문절, 내핵관계절, 분열문에 나타나는 ‘것’의 통사의미론

연재훈 · 박종원 *

- 차례 -

1. 서론
2. 보문
3. 내핵관계절
 - 3.1. 내핵관계절의 특성
 - 3.2. 내핵관계절 서술어의 제약
 - 3.3. 화용론적 제약
 - 3.4. 환유적 해석
 - 3.5. 내핵관계절에서 ‘것’의 특성
4. 분열문
 - 4.1. 한국어 계사문
 - 4.2. 분열문과 도치의 문제점
 - 4.3. 분열문에서 ‘것’의 특성
5. 결론

1. 서론

이 논문의 목적은 보문, 내핵관계절, 분열문에 나타나는 ‘것’의 통사-의미적 특성을 밝히는 것이다. 우선 이들 세 구문에 나타나는 의존명사 ‘것’이 동일한 성격의 ‘것’인지 상이한 성격의 ‘것’인지 규명하고 그 통사적 행태와 의미적 특

언어학 제 90 호 (2021. 8. 30: 129-154),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 Professor Emeritus, SOAS University of London (jy1@soas.ac.uk)

Professor, University of Minnesota Duluth (cpark2@d.umn.edu)

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보문, 내핵관계절, 분열문에 나타나는 ‘것’의 예는 각각 다음과 같다.

- (1) 가. 보문: 영수는 [순이가 수학을 전공한] 것을 알았다.
 나. 내핵관계절: 순이는 [강아지가 달려가는] 것을 잡았다.
 다. 분열문: 가. 순이가 귀여워한 것은 영수다.
 나. ??영수는 순이가 귀여워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의존명사 ‘것’은 사물을 지칭하지만 내핵관계절과 분열문에 나타나는 ‘것’은 사람을 지칭할 수도 있다. 이정훈(2020)은 사물을 나타내는 의존명사 ‘것’ 이외의 새로운 유형의 ‘것’의 존재를 관찰하고 이것을 명사성 허사 ‘것’이라고 불렀다. 문숙영(2012: 24)에서는 한국어 ‘것’의 다양한 지위에 대해서 다음 예문을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다.

- (2) 가. 나는 [그 아이가 이미 그것을 먹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나. 그 남자는 [그 아이가 먹고 있는 것]을 빼앗았다.
 다. [저 멀리서 버스가 오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라. 나는 [감이 나무에서 떨어진 것]을 주워서 먹었다.

(문숙영 2012: 24)

문숙영(2012: 24)의 설명을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2가)은 전형적인 ‘것’ 보문의 예로 가장 문법화 된 것이고 명사화소로 분류될 만하다. (2나)의 ‘것’은 어휘적 속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의존명사라고 할 수 있다. (2다)은 개체 해석으로서의 내핵관계절 분석과 행위 해석으로서의 보문 해석이 둘 다 가능한 구문이다. 개체해석의 ‘것’은 의존명사로서의 ‘것’에 가깝고 행위 해석의 ‘것’은 명사화소로서의 ‘것’에 가깝다. (2라)은 행위 해석이 배제되고 개체 해석만이 가능한 내핵 관계절 구성이다. 이런 예들을 보면 ‘것’에 단일하게 의존명사나 명사화소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문숙영 2012: 24). 문숙영(2012:25)은 한국어 내핵관계절의 ‘것’은 다른 언어에서 발견되는 내핵관계절의 명사화소와는 조금 다른 지위에 있다는 설명도 덧붙이고 있다. 그렇지만 문숙영(2012, 2017)에서는 분열문에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2)의 예들뿐만 아니라 분열문에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보문, 내핵관계절, 분열문에 나타나는 의존명사 ‘것’을 일

반적인 내용명사(contentful noun) ‘것’과 구별하여 잠정적으로 도식명사(schematic noun)¹⁾ ‘것’이라고 부르고 그 통사-의미적 특성에 대해서 인지문법(Cognitive Grammar: CG)의 개념들을 원용해서 설명하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2ㄱ, ㄷ, ㄹ)과 분열문에 나타나는 ‘것’을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 분석하고 잠정적으로 도식명사 ‘것’이라 부르고자 한다. 그리고 (2ㄴ)의 ‘것’은 의존명사 ‘것’으로서 내용 명사 ‘것’으로 잠정적으로 부르고자 한다. 보문과 내핵관계절, 분열문에 나타나는 ‘것’은 모두 도식명사 ‘것’으로서 도식명사 ‘것’은 복수접미사 ‘들’과 함께 사용되기 어렵고 형용사의 수식을 받기도 어려운 통사 행태상의 특성을 보여준다. 보문에서 도식명사 ‘것’은 주절 동사와 보문 사이에서 매개자의 역할을 한다. 내핵관계절에서도 주절 동사에 의해서 내핵관계절 안의 특정한 참여자 논항이 초점 영역²⁾으로 해석되고 도식명사 ‘것’이 매개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문맥에 따라 ‘사람’과 ‘사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분석될 것이다. 내핵관계절의 해석에는 다양한 종류의 환유가 관여하는 것이 특징으로 지적될 것이다. 분열문에 나타나는 ‘것’도 보문과 내핵관계절에서 사용되는 도식명사 ‘것’과 동일한 행태를 보인다는 점이 논의될 것이다.

이제 순서대로 2장에서는 보문, 3장에서는 내핵관계절, 4장에서는 분열문의 ‘것’의 행태와 각 구문의 특성을 밝히고 5장 결론 부분에서 논의를 정리하기로 한다.

2. 보문

명사절 보문에 사용되는 ‘것’은 다음 문장 (3ㄴ)에서 보는 것처럼 보통명사 ‘사실’과 교체될 수 있다.

- (3) ㄱ. 나는 [순이가 사과를 좋아하는] 것을 알았다.
 ㄴ. 나는 [순이가 사과를 좋아하는] 사실을 알았다.

보문 (3ㄱ)은 내포문이 참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이것은 (4ㄱ)과 같은 부

1) 도식명사는 인지문법(Cognitive Grammar: CG)에서 사용되는 ‘schematic noun’의 번역어로서 우리는 잠정적으로 CG의 개념을 원용하고자 한다. 인지문법에 대한 소개는 Langacker (2008)을 참조할 수 있다.

2) 초점영역(active zone)은 인지문법의 용어인데, 환유(metonymy)와 깊은 연관성을 보인다. 초점영역과 환유의 관계와 차이에 대해서는 3.1절 이후에 자세하게 논의될 것이다.

정문에서도 (4ㄴ)의 전제가 유지된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³⁾

- (4) ㄱ. 나는 [순이가 사과를 좋아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
 ㄴ. 순이가 사과를 좋아한다.

(4ㄱ)의 ‘것’은 (5ㄱ)의 내용명사 ‘것’과 통사적 행태와 특성이 동일하지 않다. 내용명사 ‘것’은 (5ㄴ)처럼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지만 도식명사 ‘것’은 (5ㄷ)에서처럼 형용사의 수식을 받으면 어색하다.

- (5) ㄱ. 나는 그 것⁴⁾을 보고 싶다.
 ㄴ. 나는 그 아름다운 것을 보고 싶다.
 ㄷ. ??나는 [내가 공부를 안 한] 바보스러웠던 것을 후회한다.

내용명사 ‘것’이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6)번에서 보는 것처럼 다른 대명사들과 공유되는 공통적인 특징이다.

- (6) ㄱ. 멍청한 그가 나를 힘들게 한다.
 ㄴ. 똑똑한 그녀가 우리 회사에 큰 도움이 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도식명사 ‘것’은 직접 다른 형용사의 수식을 받으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또, 내용 명사 ‘것’은 (7)처럼 사람을 가리킬 수 없다.

- (7) 순이가 집을 나간 이후, 나는 *그것(순이)이/을 너무 보고 싶다.

이제 보문에 나타나는 ‘것’의 행태에 대해서 살펴보자. 보문에서는 ‘것’ 대신에 (8ㄱ)처럼 지시사 ‘그’의 수식을 받으면 ‘그 것’이 허용된다. ‘그 것’이 허용되면 (8ㄴ)처럼 부사 ‘바로’의 수식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8ㄷ)처

3) 익명의 심사자는 (3ㄱ)에서 ‘것을’ 대신에 ‘것으로’와 같은 형태가 사용되면 사실성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보문의 사실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보문의 사실성 전제 여부를 따지는 것은 이 논문의 논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여기서는 단지 (3ㄱ)처럼 ‘것을’ 형태를 가진 목적어 보문절의 내용이 참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한다.

4) 우리는 이 논문에서 ‘그 것’을 띄어쓰기로 표기했다. 표준 표기법에서 ‘그것’은 합성어로 붙여쓰어도 불구하고 이러한 표기를 선택한 것은 형태소 ‘것’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적인 표기법이라는 점을 밝힌다. 심사자의 지적에 감사한다.

럼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바로 그’의 개입 없이 (8ㄷ)처럼 형용사의 직접 수식을 받으면 어색하게 들린다.

- (8) ㄱ. 나는 [내가 공부를 안 한] 그 것을 후회한다.
 ㄴ. 나는 [내가 공부를 안 한] 바로 그 것을 후회한다.
 ㄷ. 나는 [순이가 수학을 전공한] 황당한 바로 그 것을 어제 알았다.
 ㄹ. ??나는 [순이가 수학을 전공한] 황당한 것을 어제 알았다.

(7)에서 지적한 것처럼 내용명사 ‘것’은 사람을 지칭할 수 없다. 이에 반해,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도식 명사 ‘것’은 사람이나 비인물 명사를 모두 지칭할 수 있다.

또 다른 차이는 보문에 나타나는 도식명사 ‘것’은 묘사하는 상황이 복수 사건 일 경우에도 (9)처럼 복수접미사 ‘들’과 함께 쓰일 수 없다.

- (9) *나는 [[순이가 사과를 좋아하고 영수가 배를 좋아하는] 것]들을 알고 있다.

반면에 내용명사 ‘것’은 (10)처럼 복수 접미사 ‘들’과 함께 쓰일 수 있다.

- (10) 나는 런던에서 [많은 것]들을 둘러 보았다.

그리고 ‘그 것’은 다른 대명사들처럼 (11)에서 복수형으로 쓰일 수 있다.

- (11) ㄱ. 나는 그 것들을 샀다.
 ㄴ. 그들이 노래를 불렀다.
 ㄷ. 그녀들이 도착했다.

요약하자면 보문에 사용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물을 지칭하는 내용명사 ‘것’과 상이한 특성을 보인다. 우리는 이것을 잠정적으로 도식명사 ‘것’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3. 내핵관계절

‘것’이 사용되는 두 번째 구문은 소위 내핵관계절이라고 불리는 (12)와 같은 구문이다. 여기서 문법적 목적어는 ‘것’절 전체이지만 ‘순이가 구해낸 것’은 ‘빠지다’의 논항인 ‘영수’이다.

(12) 순이는 [영수가 바다에 빠지는] 것을 구해냈다.

주절 동사 ‘구해내다’의 논항이 내포절 주어 논항 ‘영수’와 공유되어 내핵관계절의 해석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이제 내핵관계절의 특성과 내핵관계절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등에 대해서 고찰해 보기로 하자.

3.1. 내핵관계절의 특성

Dixon (2010: 314-318)은 내핵관계절의 특성을 (13)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3a, b)는 다른 관계절 구문과 공유되는 특성이고 (13c)가 내핵관계절의 고유한 특성이다. 우리는 (13c)의 공유논항(common argument)을 형태상 명시적으로 표현된 논항뿐만 아니라 내포문에 명시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것이라도 행위의 결과처럼 암시적으로 숨어있는(implicit) 논항(Chung and Kim 2003: 56, 문숙영 2012: 20)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자세한 것은 예문과 함께 논의할 것이다.

- (13) a. The underlying structures of the main and relative clauses must share an argument - common argument.
- b. The relative clause functions as a syntactic modifier of the common argument in the main clause. At the semantic level, it will normally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common argument which assists in focusing - restricting - the reference of the common argument.
- c. The fullest statement of the common argument is in the relative clause.

문숙영(2012, 2017)은 한국어의 내핵관계절이 다른 언어와 구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추가적인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문숙영(2012, 2017)의 주장

을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 (14) ㄱ. 내포절의 핵어 명사는 대개 유정명사이거나 구체물인 경우로 한정된다.
- ㄴ. 내포절의 서술어는 일반적으로 비상태동사이다.
- ㄷ. 내포절과 주절의 사건/행위 사이에는 의미-화용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이 조건이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 ㄹ. 한국어 내핵관계절에 나타나는 ‘것’의 특성은 다른 언어의 명사화소와 다르다. ‘것’은 아직 명사화소로 완전히 문법화되지 않았다.

우리는 (14)의 특징들이 내핵관계절의 환유적 특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내핵관계절의 환유적 특성에 대해서는 3.4절에서 좀 더 상세히 논의할 것이다. 문숙영(2012: 55)은 내핵관계절의 ‘것’이 명사화소, 대명사, 보문소의 복합적 특징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문숙영(2017)은 내핵관계절의 해석이 문맥의존적이라고 하였다. 다음 예문을 보자.

- (15) ㄱ. 낮에 감독 놈이 싱글벙글 웃던 것을 다시금 생각했다.
- ㄴ. 나는 숙제 하던 것을 멈추었다
- ㄷ. 꺾이는 손톱을 깎던 것을 멈추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 (문숙영 2017: 67)

(15ㄱ)은 ‘것’이 ‘감독 놈’을 지시하는 일종의 내핵관계절로도 해석 가능하고, 감독이 싱글대던 ‘상황, 장면’을 지시하는 명사 보문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15ㄴ)은 ‘하던 숙제를 멈추고’라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15ㄷ)은 ‘깎던 손톱을 멈추고’라는 해석이 부자연스럽다. 이러한 해석의 가능성은 내핵관계절의 해석이 구조적인 것이 아니라 문맥의존적인 화용론의 문제일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문숙영 2017: 67-68). 내핵관계절의 해석과 의미 화용론적 제약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내핵관계절에 나타나는 ‘것’은 지시사를 삽입하거나 형용사의 수식을 받거나 복수접미사 ‘들’과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내핵관계절의 ‘것’은 의존명사나 완전히 문법화된 명사화소와는 대비되는 도식명사의 특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달리 말하자면 내핵관계절의 ‘것’은 보문에 나타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말이 된다. 보문과 내핵관계절의 차이는 보문은 내포문 전체가 초점 영역(active zone) 인데 비해서

내핵관계절에서는 내포절의 한 성분만이 초점 영역이라는 점에 있다. 초점영역은 인지문법의 용어인데, 환유(metonymy)와 깊은 연관성을 보인다. 초점영역과 환유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 예문을 보자.

(16) ㄱ. 청와대는 언론의 보도를 모두 부정하였다.

ㄴ. 철수는 강아지를 쓰다듬었다.

(16ㄱ)은 전형적인 환유의 예이다. 문자 그대로 이해하자면, ‘청와대’는 건물을 의미하지만, (16ㄱ)에서는 ‘대통령’을 지칭하기 때문이다. 즉, 환유는 일반적으로 지시적 변형(referential shift)을 수반한다. 그런데 (16ㄴ)은 (16ㄱ)과 차이가 난다. 가장 일반적인 상황에서 (16ㄴ)이 발화되었을 때, 우리는 철수가 손으로 강아지의 머리부분을 쓰다듬었다고 이해하지만, ‘손’이나 ‘강아지의 머리’는 문장에 나타나지 않는다. 또, ‘철수’와 ‘강아지’가 지시적 변형을 동반하지도 않는다. 인지문법에서는 ‘철수의 손’과 ‘강아지의 머리’를 초점영역이라고 한다. 여기서 서술어인 ‘쓰다듬었다’는 두 명사구 사이의 약식묘사 관계(profiled relationship)를 나타내고 두 명사구의 약식묘사(profile)는 각각 ‘철수’와 ‘강아지’로 나타난다. 그러나, 실제로 서술어가 나타내는 관계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철수’와 ‘강아지’가 아닌 ‘철수의 손’과 ‘강아지의 머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16ㄴ)의 예는 약식묘사와 초점영역 사이의 불일치를 보여준다. Langacker(2009)는 언어가 이런 불일치를 보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런 불일치는 환유의 일종이라고 주장한다. 거기에 더하여, Langacker(2009: 41)는 “문법은 근본적으로 환유”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다소 과장되어 보이기 는 하지만, 환유를 연구하는 대표적인 다른 학자들도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Panther and Thornburg (2017: 55)는 문법구조의 해석은 환유의 원칙에 민감하다고 주장한다. Littlemore (2015: 4)도 언어는 항상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의미해석과 관련된 모든 것을 문법구조에 명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환유가 사용된다고 주장한다. 우리도 앞서 언급한 학자들의 의견에 동의하며, 한국어 내핵관계절은 환유 그리고 초점영역과 약식묘사의 불일치를 염두에 두고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문절에서는 초점영역과 약식묘사가 동일한 반면 내핵관계절에서는 그 둘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불일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핵관계절이 주절의 서술어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⁵⁾

5) 구체적인 예문들은 3.2절에 제시되어 있다. 예를 들면 예문 (19)의 경우, 화자가 본 것은 내핵관계절에 나타나는 ‘종이가 타는’ [action]이 될 수는 없고 따라서 초점영역

Park (2021a, b)은 인지문법의 관점에서 한국어 내핵관계절을 분석하고 있다. 그의 주장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내핵관계절의 핵심적 성격은 환유이며, 환유가 언어 현상에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것을 고려할 때 내핵관계절을 분석하기 위해 특별한 형식론적 장치를 제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Park (2021a, b)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단, 그의 분석에서는 ‘것’에 대한 상세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내핵관계절에서 환유적 해석이 자주 관찰되는 이유는 ‘것’의 도식적 성격 때문이라는 주장을 한다⁶⁾. 이 문제는 3.5절에서 다시 다루기로 한다.

3.2. 내핵관계절 서술어의 제약

형식문법학자들(Chung and Kim (2003), M.-J. Kim (2007, 2009), J.-B. Kim (2016))은 내핵관계절 주절의 동사가 비상태 동사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17)처럼 인지동사 ‘보다’가 사용되면 그것은 내핵관계절이 아니라 인지구문이라고 주장하였다.

(17) 나는 [[미아가 집에 오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18)과 같은 구문을 고려하면 그들의 주장에 문제가 발생한다. (18)은 동일한 인지동사가 사용되었지만 내핵관계절의 해석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내핵관계절의 동사가 비상태동사여야 한다는 조건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18) 선생님이 [[내가 인터넷에 숙제를 올린] 것]을 보셨다.

내핵관계절 해석이 가능한 (19)의 예문도 인지동사 ‘보다’를 허용한다. 여기서 ‘내가 본 것’은 ‘종이’가 아니라 종이가 타고 남은 ‘재’인데 우리는 이것도 내핵관계절의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한다.

(19) 나는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종이가 완전히 타버린] 것]을 보았다.

이 자연스럽게 [action]의 결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 6) 도식명사 ‘것’ 이외에 다른 명사화소들은 보통 환유적 해석을 허용하지 않는다. 도식명사 ‘것’은 명사화소 ‘음’, ‘기’와 비슷한 점이 있지만 명사화소 ‘음’, ‘기’는 환유적 해석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예문 (31)의 설명을 참고하라.

다른 인지동사 ‘듣다’의 경우를 살펴보자. M.-J. Kim (2007, 2009)는 (20)은 내핵관계절이 아니고 이 예문에서 ‘것’은 ‘소리’를 가리킨다고 주장하였다.

(20) 나는 [[순이가 비올라를 연주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20)과 비슷한 다음 구문은 내핵관계절 해석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다음 예문 (21)을 살펴보자.

(21) 나는 [[양희은이 아침이슬을 부르는] 것]을 들었다.

(21)에서 도식명사 ‘것’은 내포문의 목적어 논항 ‘아침이슬’을 공유논항으로 초점영역화 해서 ‘내가 들은 것’은 ‘아침이슬’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수가 노래 부르는 소리나 장면이나 상황’을 들었다는 해석보다는 ‘아침이슬’이라는 노래를 들은 것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인지동사의 해석과 관련해서 내핵관계절의 해석은 인지동사 여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더 광범위한 상태동사의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박형진(2019: 112)의 예문을 살펴보자.

(22) [[아이가 글을 쓰는] 것]이 예쁘다.

- ㄱ. ‘것’은 ‘아이’와 동일지시적인 요소로 해석될 수 있다
- ㄴ. ‘것’은 ‘글씨’와 동일지시적인 요소로 해석될 수 있다
- ㄷ. ‘것’ 보문절은 ‘장면, 모습’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문장은 (ㄱ, ㄴ, ㄷ)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와 둘째로의 의미 해석은 일종의 내핵관계절로 해석되는 경우이고 셋째는 내핵관계절이 아니라 보문절 해석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형식문법의 접근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부가적인 논리형식이 또 필요하게 될 것이다. 상태동사를 포함하는 내핵관계절의 예로서는 다음과 같은 예문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23) ㄱ. [[여기 맥주 마신] 것]이(전부) 얼마예요? (계산서를 청구하면서)
 ㄴ. [[우리가 어제 맥주를 마신] 것]이 아주 비쌌다.

이상의 자료들은 내핵관계절 주절의 동사는 비인지동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7) 실제 발화에서는 아마도 ‘여기 맥주 마신 거 얼마예요?’라고 발화할 것이다.

상태동사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3.3. 화용론적 제약

물론 내핵관계절의 해석이 모든 경우에 다 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문 (24-25)는 문법적 구성이 내핵관계절과 동일하지만 비문이 된다.

- (24) ㄱ. *[[민호가 은행에서 나오는] 것]이 도망쳤다.
 나. *[[내가 개한테 밥을 주는] 것]을 때렸다. (Y.-B. Kim 2002: 43)
- (25) ㄱ. *[[준이 메리와 사랑하는] 것]을 때렸다.
 나. *[[준이 메리를 알고 있는] 것]을 방문했다. (Y.-B. Kim 2002: 547)

Y.-B. Kim (2002)은 Jhang (1991), Chung (1999)과 같은 순수 통사 중심의 접근법을 비판하면서 (24-25) 예문의 비문법성을 증거로 들고 있다. Y.-B. Kim (2002)은 Kuroda (1976)의 개념을 원용해서 내핵관계절의 적법성은 주절의 동사와 내포절 사이에 상당히 밀접한 ‘관련성’(relevancy)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26)에서 아기가 엄마한테로 가는 행위와 그것을 저지하려는 행위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내핵관계절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 (26) 순이는 [[아기들이 엄마에게로 가는] 것]을 잡았다.

또 M. Lee (2004)나 M.-J. Kim (2009)에서는 인지구문에서 사용되는 술어는 보통 개체층위 술어(individual level predicate)는 포함할 수 없다고 하면서 (27) 문장이 비문이라고 하였다.

- (27) *준은 [[메리가 장난꾸러기인] 것]을 보았다.

그러나 M.-J. Kim (2009)의 관찰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는 (28)처럼 개체층위 술어가 사용된 경우도 내핵관계절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28) 나는 [[영수가 엄청 키가 큰] 것]을 올려다 봤다.

(28)도 내핵관계절 해석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문장의 수용성에도 ‘관련성’ 조건이 관여하는 것 같다. 즉, ‘영수가 키가 큰 것’과 ‘내가 올려다 보는 것’ 사

이에는 관련성이 기재된 인과해석이 가능하다.

3.4. 환유적 해석

우리는 내핵관계절 해석에 환유적 특성이 관련된다고 생각한다. 다음 예문을 보자.

- (29) ㄱ. 순이가 [[컵의 물이 넘치는] 것]을 닦았다.
 ㄴ. 순이가 [[바지가 더러워진] 것]을 털었다.

위 문장에서 내포절과 주절이 공유한 논항은 외적으로 확실하게 표현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29ㄱ)에서 순이가 닦은 것은 ‘흘러넘친 물’이고 (29ㄴ)에서 순이가 털 것은 ‘바지의 먼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암시적인 공유 논항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형식문법에서는 많은 시도가 있었다 (Chung and Kim (2003), M.-J. Kim (2007)). 형식문법의 설명 방식이 (29) 예문들의 암시적 공유 논항을 개별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이러한 암시적 공유 논항이 수도 없이 많다는 사실을 형식문법 학자들은 간과하고 있다. 다음 예를 보자.

- (30) ㄱ. 순이는 [[큰 나무가 부러진] 것]을 집었다. [action for result]
 ㄴ. 순이는 [[날생선을 잘 말린] 것]을 먹었다 [action for result]
 ㄷ. 순이는 [[카푸치노가 컵에 가득차 오르는] 것]을 다른 컵에 덜어 냈다.
 [action for object]
 ㄹ. 나는 [[밖에서 문이 열리는] 것]을 들었다. [cause for effect]

(30ㄱ)에서 실제로 순이가 집은 것은 행위의 결과인 ‘나뭇가지’이므로 여기에서도 환유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행위(action)는 큰 나무가 부러지는 사건이며 결과(result)는 나뭇가지이다. 동일한 종류의 환유가 (30ㄴ)에서도 일어난다. 순이가 실제로 먹은 것은 날생선을 말린 결과로 생산된 ‘말린 생선’인 것이다. (30ㄷ, ㄹ)에서도 비슷한 환유가 일어나는데 (30ㄷ)에서는 ‘카푸치노의 거품’이 암시적 공유논항이고, (30ㄹ)에서는 ‘문이 열리는 소리’가 암시적 공유 논항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환유는 아무 때나 일어나지는 않는다. 이 예문들에서 환유는 주절의 서술어와 도식명사 ‘것’에 의해서 유도된다. 주절의 서술어는 구체적인 목적어와 사용 가능하고 ‘것’은 환유가 가리키는 지시체를 지칭하는 명

사 표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도식명사 ‘것’은 명사화소 ‘음’, ‘기’와 비슷한 점이 있지만 명사화소는 환유적 기능 전이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 (31) ㄱ. *순이는 [[영수가 도망감]을 잡았다.
 ㄴ. *순이는 [영수가 도망가기]를 잡았다.

이 예문에서 주절의 서술어는 구체적 목적어를 지칭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명사화소 ‘음’, ‘기’가 환유의 기능적 전이를 허용하는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유적 해석을 받지 못한다. 반면 (30)에서는 ‘것’이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환유적 기능 전이를 허용하기 때문에 환유적 해석이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다. 도식명사 ‘것’은 내핵관계절의 환유적 해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예문들이 ‘핵어명사 없는 내핵관계절’ (headless IHRC)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Nomura (2000)는 일본어 예문 (32)가 내핵관계절인데 (32ㄱ)에서는 ‘shave one’s beard’ 대신에 ‘shave one’s face’가 환유적 해석을 받은 것이고 (32ㄴ)은 낱생선을 말리는 행위가 그 결과인 말린 생선으로 환유적 해석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32) ㄱ. [[kesa kao-o sotta] no]-ga yuugata-ni-wa
 this morning face-Acc shaved NMZ-Nom evening-Loc-Top
 mata nobite kita.
 again growing came
 “I shaved my face in the morning, which (=beard) started to grow again in the evening.”
 ㄴ. Hanako-wa [[Taroo-ga namasakana-o hosita] no]-o tabeta.
 H-Top T-Nom raw.fish-Acc dried NMZ-Acc ate
 “Taro dried raw fish, which (=dried fish) Hanako ate.”
 (Horie 1993: 450)

문숙영 (2012, 2017), 박형진(2019), 이지은(2020, 2021) 등에서는 한국어 내핵관계절 구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중의성 문제를 논의하면서 중의성의 원인이 화용론적 해석에 기인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도 내핵관계절의 해석에 언어외적인 지식과 화용론적 해석이 관여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우리는 내핵관계절의 해석에는 환유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다음 예문에서도 화용론적 지식이나 환유가 내핵관계절 해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 (33) ㄱ. 나는 [[순이가 영수를 때리는] 것]을 잡았다.
 ㄴ. 나는 [[순이가 영수를 때리는] 것]을 감싸안았다.
 ㄷ. *나는 [[순이가 영수를 때리는] 것]을 잡았다. (영수를 잡았다는 의미로)

(33ㄱ)에서 내가 잡은 것은 ‘순이’인데 이 경우 행위자가 환유를 통해 도식명사 ‘것’과 공지시된다. (33ㄴ)에서는 영수가 단순한 피행위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환유적 해석을 받음으로써 동사 ‘감싸안다’의 논항으로 도식명사 ‘것’과 공지시된다. 반면에 (33ㄷ)에서 ‘것’은 영수를 잡았다는 의미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한국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에서 action for agent와 같은 환유는 흔히 관찰되지만, action for patient와 같은 환유는 매우 드물게 쓰이기 때문이다. (33ㄷ)에서 ‘영수’는 피행위자(patient)이므로, 환유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다면 왜 (33ㄴ)은 허용되는가? 그 이유는, (33ㄴ)의 경우, ‘영수’가 단순한 피행위자가 아닌 ‘피해자’, 즉 감싸안은 행위의 목적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 해석의 경우, 화자가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의미가 도출되므로, ‘action for object’와 같은 환유를 통한 이해가 가능하게 된다.

3.5. 내핵관계절에서 ‘것’의 특성

이제 내핵관계절에 나타나는 도식명사 ‘것’의 통사적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자. 내핵관계절에 나타나는 ‘것’은 보문에 나타나는 ‘것’과 동일한 행태를 보인다. 다시 말해 (34)에서 보는 것처럼 형용사 수식을 받거나 복수접미사 ‘들’을 첨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34) ㄱ. *순이는 [[영수가 뛰는] 빠른 것]을 잡았다.
 ㄴ. *순이는 [[영수가 뛰는] 빠른 것]을 보았다.
 ㄷ. *순이는 [[영수가 뛰고 철수가 걷는] 것]들을 잡았다.
 ㄹ. *순이는 [[영수가 뛰고 철수가 걷는] 것]들을 보았다.

또한 내핵관계절의 ‘것’은 지시사 ‘그’의 결합을 허용하지 않는다.

(35) *순이는 [[영수가 뛰는] 그 것]을 잡았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문맥에서는 ‘그 것’이 나타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 한해서 부사 ‘바로’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36) ㄱ. [[내가 쪽지를 보낸] 그 것]을 받았니?

 ㄴ. [[내가 어제 순이에게 선물을 보낸] 바로 그 것]을 순이가 오늘 버렸다.

(36)은 동격명사와 같은 해석을 받는다. 이 문맥에서 ‘쪽지’나 ‘선물’은 내포절 사건이나 행위 대신에 환유적 해석을 받아 주절 동사의 목적어 공유 논항으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대명사 ‘그 것’과 비슷한 자격으로 동격 명사 해석을 받는다. ‘그 것’은 인물명사는 지칭할 수 없는 대명사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인물명사를 환유적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사용되지 못한다.

4. 분열문

분열문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첫째, 분열문에 나타나는 ‘것’과 다른 구문, 즉 보문이나 내핵관계절에 나타나는 ‘것’이 동일한 성질의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둘째는 도치 구문과 관련이 있다. 즉 분열문의 도치구문은 어떤 경우에는 가능한데 어떤 경우에는 불가능한 비대칭성을 보여준다. 우리는 몇 가지 관찰을 통해 분열문에 나타나는 ‘것’도 보문이나 내핵관계절에 나타나는 도식명사 ‘것’과 동일한 성질을 보여준다는 것을 논증할 것이다. 분열문은 계사구문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우선 계사 구문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4.1. 한국어 계사문

Kim and Sells (2007), J.-B. Kim (2016) 은 한국어 계사 구문을 다음 세 가지로 구분했다.

(37) ㄱ. 서술유형(Predicative copula): 그 도자기는 사실 가짜(이)다.

 ㄴ. 등가유형(Equative copula): 순이가 바로 그 의사(이)다.

ㄷ. 특정유형(Specificational): 내가 만난 것은 철수(이)다.

(내가 만난 것은 누구니?에 대한 대답으로서)

(37)의 세 가지 유형의 차이는 각각의 명사가 지시적 의미가 있느냐 하는 점이다. (37ㄱ)에서 주어는 지시적이지만 서술명사는 지시성이 없다. (37ㄴ)에서는 주어와 서술명사 모두 지시성이 있다. (37ㄷ)은 (37ㄱ)과 반대의 경우인데 주어는 비지시적이고 서술명사는 지시적이다. 그런데 (37)의 세 문장 중에서 (37ㄴ)만이 도치구문을 허용한다. 나머지 두 구문은 도치되었을 때 (38)에서 보는 것처럼 비문을 형성한다.

(38) ㄱ. *가짜는 사실 그 도자기다.

ㄴ. 그 의사는 순이다.

ㄷ. *철수는 내가 만난 것이다.

(내가 만난 것은 누구니?에 대한 대답으로서)

우리는 여기서 지시성 (referentiality)이라는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학자들마다 지시성이란 개념을 약간씩 다르게 사용하는데 우리는 지시성을 담화 속에서 화자와 청자에 의해 공유되는 실체명사(grounded noun)라고 정의한다. 실체명사는 인지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화자가 청자의 주의를 끌고자 하는 특정한 명사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명사구 (noun phrase)가 실체명사라고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⁸⁾ 영어에서 실체명사(명사구)는 (39)에서 보는 것처럼, 관사(a), 무관사(b), 지시사(c), 소유격 표현(d) 등을 통해 나타난다. 즉, 관사나 소유격 표현 등이 화자가 의도된 객체를 청자에게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39) a. They bought **the book**.

b. They drank **beer**.

c. Haruki Murakami wrote **that book**.

d. **Jon's car** broke down again.

그러나, 실체명사와 지시성은 동일하지 않다. 만약, 예문 (40a)가 (40b)에 대한 답변으로 쓰였다면, 'The winner of the title Miss World USA 1972'는 한정성을

8) 영어의 that book은 명사구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실체명사라고 할 수 있다. 즉, book은 type을 나타내는 데 반해, that book은 token을 지칭한다는 것이다.

갖는 실체명사이지만 지시성은 갖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명사가 완전한 지시성을 갖기 위해서는 실체명사임과 동시에 화자와 청자에 의해 공유되는 구체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 (40) a. The winner of the title Miss World USA 1972 was Lynda Carter.
 b. Who was the winner of the title Miss World USA 1972?

한국어도 영어와 마찬가지로, 실체명사가 지시사나 속격표현 등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는 무표지 명사들이 실체명사(명사구)로 사용되는 예가 많다. 예문 (41)에서, ‘선물’, ‘책’, ‘집’은 실체명사이다. 이 명사들 중, ‘선물’과 ‘집’은 지시성이 강한 데 반하여, ‘책’은 지시성이 약하다. 왜냐하면 화자가 읽고 싶어하는 책이 어떤 책인지 구체적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 (41) ㄱ. 내가 **선물**을 순이에게 보냈다.
 ㄴ. **책**이 너무 읽고 싶다.
 ㄷ. 아침에 순이가 **집**을 청소했다.

우리가 정의한 지시성이 분열문에서 나타나는 ‘것’의 통사적 성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음 절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4.2. 분열문과 도치의 문제점

J.-B. Kim (2016)은 분열문을 포함하고 있는 세 가지 유형의 계사 구문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 (42) ㄱ. 서술유형: [[존이 산] **것**]은 정말 가짜다.
 ㄴ. 등가유형: [[존이 번역한] **것**]은 이 책이다.
 ㄷ. 특정유형: Q: [[기생충을 감독한] **사람**]은 누구니?
 A: [[기생충을 감독한] **사람**]은 봉준호다.

위에서 살펴본 세 가지 유형의 계사 구문의 경우처럼 분열문의 경우에도 등가유형의 경우에만 도치를 허용한다. 다음 예문을 보자. (43ㄷ)의 경우에는 독립된 진술로는 적법한 문장이지만 주어진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표시를 했다.

- (43) ㄱ. 서술유형: *정말 가짜는 [[존이 산] 것]이다.
 ㄴ. 등가유형: 이 책은 [[존이 번역한] 것]이다.
 ㄷ. 특정유형: Q: [[기생충을 감독한] 사람]은 누구니?
 A: #봉준호는 [[기생충을 감독한] 사람]이다.

분열문의 도치구문은 ‘것’의 통사적 그리고 의미적 속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유형의 도치구문에서는 ‘것’이 사람을 가리키는 데 사용될 수 없다. 설명의 편의상, (1)에 보인 예문을 (44)로 다시 소개하기로 한다.

- (44) ㄱ. 순이가 귀여워한 것은 영수다.
 ㄴ. ?영수는 순이가 귀여워한 것이다.

(44ㄱ)과 (44ㄴ)에서 ‘것’이 이끄는 절은 모두 비지시적이다. 이 예문들에 사용된 ‘것’은 도식명사이므로 지시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44ㄱ)은 ‘순이가 귀여워한 것은 누구냐?’와 같은 특정유형 계사구문의 응답으로 쓰일 때 가장 자연스럽다. ‘순이가 귀여워한 것’은 비지시적이지만, ‘영수’는 지시적이므로, 특정유형의 구성조건을 만족시킨다. 반면 (44ㄴ)에 보인 도치구문은 ‘영수’는 지시적이거나 ‘순이가 귀여워한 것’은 비지시적이므로 특정유형 계사구문의 구성요소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44ㄴ)과 같은 도치구문이 자연스럽지 못한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만약 ‘것’에 대한 속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다면, 왜 (44ㄴ)이 자연스럽지 못한지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며 불필요한 통사적 제약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분열문에서 ‘것’의 특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4.3. 분열문에서 ‘것’의 특성

분열문의 중요한 특징은 ‘총망라성’ (exhaustiveness)의 의미와 분열절에 의한 존재 전제 (existential presupposition)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이다 (위혜경 2015: 772). (45ㄱ)과 같은 분열문이 일반적인 문장과 다른 점은 ‘영수’가 특정 시점과 상황에서 만난 사람은 ‘순이’이고 다른 사람은 없다는 총망라성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45ㄴ)과 같이 영수가 순이 이외에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내용을 추가하면 어색하게 들린다. 또 (45ㄱ)은 영수가 누군가를 만났다는 존재 전제를 함축하는데 (45ㄷ)처럼 전제를 부정하는 내용을 첨가하면 역시 어색하게

들린다.

(45) ㄱ. 영수가 만난 것은 순이다.

ㄴ. ?영수가 만난 것은 순이지만 영희도 만났다.

ㄷ. 영수가 누군가를 만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영수가 만난 것은 순이다.

그렇다면 분열문에 나타나는 '것'의 통사의미적 특징은 무엇일까? 얼핏 보면 분열문에 나타나는 '것'은 보문이나 내핵관계절에 나타나는 '것'과 다른 것처럼 보인다. (46ㄱ)의 분열문은 공백을 가진 관계관형절처럼 보이므로 (46ㄴ)처럼 분석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다. 그렇지만 (46ㄷ)에서 보는 것처럼 관형절의 기저 문장에서 '것'은 기저문장의 목적어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없다. 이 사실은 기저문장의 논항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46) ㄱ. [[내가 만난] 것]은 순이다.

ㄴ. [[내가 ei 만난] 것]은 순이다.

ㄷ. *내가 그 것을 만났다.

이것은 분열문의 '것'이 내용명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분열문의 '것'은 (47)에서 보는 것처럼 보문과 내핵관계절에서 사용되는 도식명사 '것'과 동일한 행태를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복수접미사 '들'과 사용될 수 없고 형용사에 의해 수식을 받을 수도 없다.

(47) ㄱ. *[[내가 만난] 것]들은 순이와 영수다.

ㄴ. *[[내가 만난] 아름다운 것]은 순이다.

염재일(2014)은 다음 예문 (48ㄱ)처럼 서술명사가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에, (48ㄴ)처럼 복수 접미사 '들'이 첨가되면 문법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을 관찰하였다. 그러나 (48ㄷ)처럼 서술명사가 사물명사이면 복수 접미사 '들'이 첨가되어도 문법성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48) ㄱ. [[영수가 만난] 것]은 의사다.

ㄴ. ??[[영수가 만난] 것]들은 의사였다.

ㄷ. [[영수가 산] 것]들은 가방이었다.

예문 (48)은 서술명사가 단수일 경우에는 ‘것’이 인물명사나 비인물명사를 지시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서술명사가 복수일 경우에는 ‘것’이 인물명사를 지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재훈(2014)은 (48ㄴ)의 ‘것’과 (48ㄷ)의 ‘것’이 다르다고 가정하고 형식의미론적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예문 (49)를 살펴보자. ‘것’이 사람을 지칭하는 (49ㄱ)에서는 형용사 수식이 불가능하지만 ‘것’이 사물을 지칭하는 (49ㄴ)에서는 형용사 수식이 가능하다.

(49) ㄱ. *[[영수가 만난] 유명한 것]은 의사였다.

ㄴ. [[영수가 산] 비싼 것]은 가방이었다.

우리는 앞에서 도식명사 ‘것’은 복수접미사 ‘들’과 사용될 수 없고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49ㄴ)에서 형용사 수식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49ㄱ)의 ‘것’은 도식명사 ‘것’이지만, (49ㄴ)의 ‘것’은 내용명사 ‘것’의 특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우리의 해석은 예문(50)이 중의적일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50) [[영수가 산] 것]은 가방이었다.

(50)이 중의적이라는 말은 (50)의 ‘것’이 도식명사로서 기능할 때는 분열문 해석을 받는 것이고, 내용명사로서 기능할 때는 관형절의 표제 명사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Kim and Sells (2013)은 ‘것’이 사물을 지칭할 때는 (51)처럼 ‘것’ 관형절을 등위접속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51) ㄱ. [[[영수가 산] 것]과 [[순이가 판] 것]]은 모두 가짜다.

ㄴ. 이 책들이 [[[존이 산] 것]과 [[메리가 읽은] 것]]들이다.

(J.-B. Kim and Sells 2013: 104)

그런데 (51ㄴ)에서 ‘것’이 복수접미사 ‘들’과 공기 가능한 이유는 ‘것’절이 접속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51ㄱ, ㄴ)에서 ‘것’이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내용명사이고 이것이 지칭하고 있는 것들이 복수이기 때문이다. 내용명사 ‘것’만이 지시적 의미를 가지며 복수접미사 ‘들’과 공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래 (52) 예문에서 ‘것’ 절은 등위 접속구문이 아니지만 복수 접미사 ‘들’ 때문에 지시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

(52) 이 책들이 [[영수가 산] 것]들이다.

다시 말해 (51)-(52)에 나타난 ‘것’은 실체적인 개체(grounded entity)이다. (51ㄱ)에서 ‘것’은 암시적으로 실체화(grounded) 되었고 (51ㄴ)과 (52)에서는 명시적인 복수 표지를 갖고 실체화 되었다. 따라서 이 예문에서 ‘것’은 다른 예문들에서 보인 도식명사 ‘것’과는 다른 성질의 것이다.

요약하자면, 분열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것’이 복수접미사 ‘들’과 사용 가능하고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구문들은 분열문이 아니라 관형절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53) ㄱ. [[영수가 산] 것]들은 가방이었다.

ㄴ. [[영수가 산] 비싼 것]은 가방이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것’은 내용명사 ‘것’과 도식명사 ‘것’의 두 가지가 있는데 (53)에 나타나는 ‘것’은 복수접미사 ‘들’과 공기 가능하고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내용명사 ‘것’이다. 내용명사 ‘것’이 나타나는 (53)과 같은 구문들은 분열문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53)과 같은 구문은 우리의 분열문 분석에서 제외된다.

이상에서 논의한 것처럼, 분열문의 ‘것’을 보문이나 내핵관계절의 ‘것’과 마찬가지로 도식명사 ‘것’으로 파악하면 아래 예문에서 (54ㄴ)이 비문이 되는 이유도 어려움 없이 설명할 수 있게 된다.

(54) ㄱ. 영이가 만난 것은 철수와 순이었다.

ㄴ. *영이가 만난 것들은 철수와 순이었다. (이정훈 2020: 64)

(54)의 두 문장이 보여주는 것처럼 분열문의 ‘것’에 복수접미사 ‘들’이 결합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분열문의 ‘것’이 도식명사라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 결론

우리는 보문, 내핵관계절, 분열문에 나타나는 ‘것’을 비교 관찰하여 일관된 분석을 제공하였다. 우선 ‘사물’을 가리키는 의미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의존명사

‘것’을 내용명사 ‘것’으로 명명해서 구분하였고 보문, 내핵관계절, 분열문에 나타나는 ‘것’은 특별한 내용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문맥에 따라 ‘사물’과 ‘사람’ 각각을 지칭할 수 있는 도식명사 ‘것’으로 구분하였다. 보문과 내핵관계절, 분열문에 나타나는 ‘것’은 모두 도식명사 ‘것’으로서 도식명사 ‘것’은 복수접미사 ‘들’과 공기하기 어렵고 형용사의 수식을 받기도 어려운 통사 형태상의 특성을 보여준다.

보문에서 도식명사 ‘것’은 주절 동사와 보문 사이에 매개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사실성 보문 해석을 만들어 낸다. 인지문법의 용어로 말하자면 보문으로 표상된 사실성 진술이 초점 영역(active zone)의 역할을 하고 보문의 수식을 받는 도식명사 ‘것’은 약식묘사 명사(nominal profile)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내핵관계절에서도 도식명사 ‘것’과 초점영역화의 역할은 보문에서와 비슷한 과정으로 발생한다고 보았다. 주절 동사에 의해서 내핵관계절 안의 특정한 참여자 논항이 초점 영역으로 해석되고 도식명사 ‘것’이 매개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문맥에 따라 ‘사람’과 ‘사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내핵관계절의 해석에는 다양한 종류의 환유가 관여하는 것이 특징으로 지적되었다. 분열문에 나타나는 ‘것’도 보문과 내핵관계절에서 사용되는 도식명사 ‘것’과 동일한 행태를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복수접미사 ‘들’과 사용될 수 없고 형용사에 의해 수식을 받을 수도 없다. 다만 분열문인 것처럼 보이는데 ‘것’이 복수접미사 ‘들’과 사용 가능하고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구문들은 분열문이 아닌 관형절로 분석하였다.

참고문헌

- 문숙영(2012), “유형론의 관점에서 본 한국어 관계절의 문제”, *개신어문연구* 35, 31-68.
- 문숙영(2017), “유형론의 관점에서 본 한국어의 ‘것’ 명사절”, *국어학* 84, 33-88.
- 박형진(2019), “한국어 일명 내핵관계절 구성의 통사와 의미”, *반교어문집* 52, 87-118.
- 염재일(2014), “소위 강조구문과 ‘것’의 의미”, *언어와 정보* 18(2), 103-122.
- 위혜경(2015), 분열문의 의미와 초점 후치사의 수의성. *어학연구* 51(3), 771-792.
- 이정훈(2020), “내핵 관계절 구성과 분열문의 ‘것’의 통사론”, *한글* 81(1), 45-81.
- 이지은(2020), “‘-은 것이’와 ‘-은 것을’로 표시된 내핵관계절 및 유사 구성 연구”, *국어학* 95, 167-210.
- 이지은(2021), “내핵관계절의 형성 제약 및 부사절로의 의미 확장 연구”, *어학연구*

57(1), 51-85.

- Chung, Chan and Jong-Bok Kim (2003), Differences between externally and internally headed relative clause construction. In Jong-Bok Kim and Stephen Wechsler (eds.), *The proceedings of the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PSG*, 43-65.
- Chung, Daeho (1999), A complement analysis of the head internal relative clauses. *Language and Information* 3, 1-12.
- Dixon, R. M. W (2010), *Basic Linguistic Theory: Grammatical Topics*, Vol. 2.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orie, Kaoru (1993), Internally headed relative clauses in Korean and Japanese: Where do the differences come from? In Susumu Kuno et al. (eds.),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V*. Seoul: Hanshin Publishing Company, 449-458.
- Jhang, Sea-eun (1991), Internally headed relative clauses in Korean. In Susumu Kuno et al. (eds.),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VI*, Seoul: Hanshin Publishing Company, 235-248.
- Kim, Jong-Bok (2016), *The Syntactic Structures of Korean: A Construction Grammar Perspectiv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im, Jong-Bok and Peter Sells (2007), Some remarks on Korean nominalizer *kes* and information structure.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17, 479-494.
- Kim, Jong-Bok and Peter Sells (2013), Interactions between (pseudo-) cleft and copular construction *sin* Korean. *Language Research* 30(1), 93-139.
- Kim, Min-Joo (2007), Formal linking in internally headed relatives. *Natural Language Semantics* 15, 279-315.
- Kim, Min-Joo (2009), E-type anaphora and three types of *kes*-construction in Korean. *Natural Language & Linguistic Theory* 27, 345-377.
- Kim, Yong-Beom (2002), Relevancy in internally headed relative clauses in Korean. *Lingua* 112, 541-559.
- Kuroda, Sige-Yuki (1976), Headed relative clauses in Modern Japanese and the relevancy condition. Berkeley, CA: *Proceedings of the Second Annual Meeting of the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II*, 269-279. Retrieved from <https://escholarship.org/uc/item/41v9f24f>.
- Langacker, Ronald W (2008), *Cognitive grammar: A basic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angacker, Ronald W (2009), *Investigations in cognitive grammar*. Berlin & New York: Mouton de Gruyter.

- Lee, Miae (2004), Focus-induced constraints in head-internal relatives. In Susumu Kuno et al. (eds.),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X*. Seoul: Hanshin Publishing Company, 568-581.
- Littlemore, Jeannette (2015), *Metonymy: Hidden shortcuts in language, thought, and communic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omura, Masuhiro (2000), *The Internally-Headed Relative Clause Construction in Japanese: A Cognitive Grammar Approach*. San Diego, CA: University of California dissertation.
- Panther, Klaus-Uwe and Linda L. Thornburg (2017), *Motivation and Inference: A Cognitive Linguistic Approach*. Shanghai: Shanghai Foreign Language Education Press.
- Park, Chongwon (2021a), Metonymy in the Korean internally headed relative clause construction. *Linguistics Vanguard*. To appear.
- Park, Chongwon (2021b), Korean relative clauses: Metonymy, zone activation, and reference point. *Studia Linguistica*. To appear.

<Abstract>

A Syntactic-semantic Analysis of the Bound Noun ‘kes’ in Three Different Grammatical Constructions in Korean

Jaehoon Yeon · Chongwon Park

This article aims to develop a coherent syntactic-semantic analysis of the bound noun ‘kes’ employed in three grammatical constructions in Korean: factive, IHRC (Internally Headed Relative Clause), and cleft constructions. We demonstrate our Cognitive Grammar-based approach not only sheds light on the nature of the constructions in question but also provides reasonable accounts of hitherto ignored data in the literature. Although extensiv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the properties of ‘kes’ in each said construction, very few proposals have been made on the generalized function of ‘kes’, which is applicable to all three constructions. In teasing out the properties of the bound noun ‘kes’, we first identify two types of ‘kes’ in Korean. While one has a specific contentful meaning translated as ‘thing’, the other exhibits a schematic meaning that indicates its involvement in the process profiled by the predicate in the adnominal clause. We demonstrate that the ‘kes’ adopted in the three constructions in question is the latter case. For both factive and IHRC constructions, we argue that the notion of zone activation is at the heart of the constructions. While what is grammatically encoded as a subject or an object is the adnominal clause headed by ‘kes’, what actually interacts with the matrix predicate is the adnominal clause itself in the factive construction and one specific participant of the adnominal clause in the IHRC construction. Since zone activation is a species of metonymy, we further demonstrate that both constructions ultimately exhibit metonymic properties. We then argue that the ‘kes’ employed in the cleft construction is identical to the ‘kes’ in the

other two constructions. In accounting for the unacceptability of the inverted cleft construction, we demonstrate that the unacceptability is attributed to the involvement of 'kes' in the subject nominal position; as a schematic noun, it cannot be referential, thereby yielding an undesirable specificational copular structure.

Key words: Factive, Internally Headed Relative Clause (IHRC), Cleft constructions, nominalizer 'kes', schematic meaning, Cognitive grammar, Zone activation, metonymy

논문 접수: 2021.07.14

논문 수정: 2021.08.13

게재 결정: 2021.08.19